

강의 주제: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삶의 몸짓, 춤

명사: 이애주 교수

주최: 휴넷 골드특강

일시: 2016년 02월 24일 수요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전통춤회 대표

동방문화진흥회 부회장

1984년 '춤과 신'을 창단 <나눔 굿> <도라지꽃> 공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바람맞이> 공연

1996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 이후 아시아, 미국, 유럽등 30여 나라에서 수백 회 공연하여 전통춤을 세계에 알림

2007년에는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식'에서 '상생평화 춤' 공연

2003년 만해대상 수상

2012년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수상

“어려서부터 배우지도 않은 춤을 혼자서 추곤 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부모님께 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식기관에 넣어주셨지요. 첫 스승님은 국립국악원에서 궁중무를 추어오시던 김보남 선생님이셨구요. 대학 입학 앞두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무용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마침 서울대 체육과에서 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서울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이애주(69)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전통춤의 태두 한성준과 그 수제자 한영숙으로 이어지는 승무의 적통을 이은 '춤꾼'이다. 또한 진혼의 춤, 상생의 춤을 통해 이웃들의 눈물을 받아내고 희망을 품게 하던 우리시대 춤꾼입니다.

한국춤이란

자연의 춤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에 근원한다. 사람도 자연에서 태어난 한 생명의 종이다. 춤을 인간 삶의 몸짓이라고 할 때, 특히 자연에 바탕을 둔 한국춤이란 모든 존재의 근원인 자연의 몸짓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춤은 우주공간에서 움직여지는데,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움직여지는 인간의 몸놀림이다. 천지인 삼재(天, 地, 人, 三才)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사위, 땅사위, 삼태극사위라고 할 수 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은 자연에 내맡겨진 몸이 자연과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다. 예컨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물이 흐르는 모습 등 자연 만물의 움직임이 춤의 몸동작이 되는 것이다.

2) 내면의 정신이 드러나는 몸사위의 춤

팔다리를 움직여 춤추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몸의 형상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사유의 정신을 보는 것이다. 바로 춤이란 움직임 안에 내면의 정신이 함축된 몸사위 몸사상의 춤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춤사위로 설명하면 춤의 처음과 마지막에 절드림을 하게 되는데 몸을 굽혀서 웅크리게 된다. 몸을 굽힘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 굽힘이 연결되어 모든 것을 비우게 된다.

바로 춤에서 기본 몸짓이 되는 절드림의 몸짓만 보더라도 한국춤이란 내 자신을

속이고 낮춰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무의 세계로 가는 정신적인 사위의 몸짓이다.

춤추는 몸

1) 불립문자(不立文字)

사람은 말과 글로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몸을 움직여 자기 의지(의사)를 나타내었다. 바로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말이나 글로 대신할 수 없을 때 춤의 몸짓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춤은 불립문자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내면의 깨달음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춤추는 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립문자의 속성을 가지고 춤을 추는 몸짓은 몸에 의해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몸짓 즉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은 큰 의미의 춤이라 할 수 있는데, 몸짓을 하는 바로 그 몸은 무엇인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몸의 의미는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심기신'(心氣身)이라는 대목에 잘 나타나있다. 즉 몸(身)은 심(心)과 기(氣)가 조화된 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운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일신고(三一神誥)>>에 의하면 심기신(心氣身)의 본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성명정'(性命精)으로 나타난다.

심(心) 곧 마음은 성(性)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고, 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氣)는 명(命)에 의한 것이고, 몸인 신(身)은 정(精)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명정이라는 본성이 심기신의 몸을 통해 나타나 움직여질 때 몸짓이 되고, 그 몸짓은 춤이 된다.

3. 춤과 무의 의미

위의 모든 춤을 뜻글자로 쓰면 무(舞)라 한다. 그 무(舞)자의 근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巫)의 의미를 들 수 있다. 무(巫)의 글자를 분석해볼 때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잇는) 人(사람)이 춤을 추는 형상의 글자이다. 바로 춤이란 하늘, 땅의 우주공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 춤은 특히 무당춤이나 굿춤에 잘 나

타나 있고 다른 모든 춤들도 같은 이치(理)이다.

무(舞)자의 또 다른 의미는 같은 발음 '무'에서 '武'를 들 수 있다. 무(武)는 무예, 무도에서 나타나는 무(武)의 성격과 같이 일순간에 닫히고 열리는 강건하고 역동적인 춤의 본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舞)의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無)를 들 수 있다. 앞서 절드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몸을 숙여 낮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무아(無我) 무심(無心)의 경지인 '無'라 표현할 수 있다. 이 無는 외형적 춤의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정신으로 들어가는 형이상(形而上)적인 춤의 정신세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뜻글자인 한자로 舞, 巫, 武, 無의 4무는 서로 조화하고 융합하여 춤의 본질을 확연히 드러내며 대동의 춤 세계를 빚어낸다.

생명이 자연에서 태어났듯, 사람도 자연에서 태어난 한 생명으로 그 생명의 태동이 춤의 시작이다. 움크린 태아가 폈다 굽히며 쉬는 숨이 생명력으로 이어지듯, 시종일관 굽히고 펴는 우리 춤의 숨쉬기는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사람이 곧 신이고 곧 사람이라는 원리로 우주의 기운을 주고받음이다.

의식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현대무용과 만년이 넘는 우리 춤은 같을 수 없다. 우리 춤은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 하여 "춤을 익힌다는 것은 자연을 따르고 몸을 통한 수행(修道)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춤'의 형태분석은 '추다'의 어근 '추'에 명사형어미 'ㄴ'이 활용된 '추' + ㅁ(명사형어미) 춤으로 분석된다. '추다'는 새(술개)가 '날개를 치다'의 '치다'가 치다> 추다로 모음 교체된 형태의 단어라고 추정된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춤을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팔다리를 이리저리 놀리고 전신을 우쭐거리면서 율동적으로 뛰노는 동작"이라고 풀이해 놓았는데, 이른바 手舞足蹈를 말하는 것이다. 갑골문

에 나타난 '舞' 字의 자형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증명한다. 갑골문의 '舞'자는 없을 무(無)자와 같았는데 후대에 두 발을 어긋나게 디디는 모양의 '어그러질 천(舛)'자를 하단에 첨가해 '舞'자를 만들었다.

춤과 노래 즉 歌舞(가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생명활동이다. 춤은 인류 역사에서 신화의 새옷과 더불어 시작된다. 神話(신화) 시대의 祭儀(제의)에서부터 일체가 돼 펼쳐지는 것이 가무였다. 이처럼 춤과 노래는 원시종합예술의 하나로 신석기시대부터 인간 삶의 중심이 됐다. 삶의 찬미에서 춤은 발생되고, 祭天儀式(제천의식)을 통해 그 형식과 내용이 점차 발전해 의례적 성격으로 다듬어져 나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춤은 영혼의 감추어진 언어이다. 우리가 잊고 있어 던 은닉된 신화를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신의 모자이크가 춤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무본이라, 본립이도생 하나니, 군자가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고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근본을 망각한 지식교육으로는 진정한 자아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룰 수 없다”

‘이애주 무용발표회’라고 하여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이애주 춤판’이라고 했다. 왜냐, ‘무용’이란 말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식민 용어로서 그때부터 춤이, 몸짓이 본격적으로 왜곡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식민용어로 바뀌진 우리말을 제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불온한 용어를 쓰는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분류시켰고 국립극장 ‘블랙리스트’ 10명 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다.” ‘춤’이란 단어가 이렇게 편하게 쓰이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다.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라는 무용의 삼분법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인데, 모두 다 같은 비중으로 세 등분되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끌어 안아야 하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춤을 출 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요. 그러다가도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면 춤이 틀려지죠.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연습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갖추어진 작업실에서 마음껏 춤추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적, 정신적 토대가 제대로 잡혀야 해요. 문화예술부분에 후원이 필요한 상태지요. 제대로 된 춤학과, 춤 연구소, 춤의 터전이 필요하지요. 몸으로 실천하는 학문의 터전이 잡혀야 해요”

무용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 교수의 춤은 형상적 움직임을 통해서 춤 내면의 이치를 인식해 가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춤은 격물치기에 이르는 길이다. 춤이 자연의 움직임이고, 그 자체임으로서의 춤을 뜻한다. 춤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까지를 이어 인문적인 이론을 몸철학으로서 근원적 실체를 드러내는 지행합일로 연결되는데 바로 그것이 춤이라고 한다.

이 교수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고유의 전통 춤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나아가 흥에 겨워 언제 어디서든 나누고 소통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